



법성포 단오제 “그네 뛰러 오세요”
400여년의 전통을 지닌 ‘영광 법성포 단오제’가 17일 법성포 숲쟁이공원 일대에서 개막했다. 대표적 행사 중 하나인 그네뛰기에 참가한 한복 차림의 여인이 하늘 높이 그네를 타고 오르고 있다. 법성포 단오제는 창포 머리감기 체험, 용왕제, 세계민속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19일까지 열린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BIE 실사단 ‘여수 최고점’

정부 지원·경제력 호평...모로코 ‘치안 불안’ 폴란드 ‘열기 부족’

속박·교통 등 SOC 미흡 지적...보완 시급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18~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41회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를 앞두고 한국이 개최 신청 3개국 실사 결과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4~5월 실시된 BIE의 유치 후보도시 현지 실사 결과 종합 평가측면에서 여수가 가장 앞섰고 탕헤르(모로코), 브로츠와프(폴란드)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와 전남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여수는 개최 명분과 준비 상황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IE는 여수세계박람회 주제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은 지난 4월 실사에서 지구온난화로 인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환경 보전노력을 통해 공동 번영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호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제력이 가장 앞서고 정보통신(IT) 등 첨단과학이 발달해 유치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내외의 분석이다. 박람회 개최를 위한 마스터플랜도 우수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전 국민과 지역주민의 유치 열기 또한 매우 뜨거워 엑스포 개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그러나 불편한 숙박·교통 여건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BIE는 탕헤르에 대해 치안이 불안하고 경제력이 떨어져 개최능력에 문

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모로코 국왕이 실사단을 직접 맞아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치안 문제와 개최능력 보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후보도시인 브로츠와프 시민들조차 실사단 방문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 유치 열기가 여수보다 훨씬 낮았다는 총평이다.

BIE는 18일 오후 3시(한국시간 18일 밤 10시) 총회 개막과 동시에 실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실사 결과로 유치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최 타당성과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돼 개최국 선정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19일 오전 9시30분(한국시간 19일 오후 4시30분)부터 한국을 비롯한 모로코, 폴란드 등 유치 신청국들은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다. 한국은 19일 모로코, 폴란드에 이

어 45분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 ▲미리 가본 2012 여수세계박람회 등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한국과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들이 공동 조사·연구·개발하고, 매년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여수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마음을 붙잡을 ‘히든 카드’로 엑스포 유치를 공언하는 복안이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오현섭 여수시장도 총회에 참석해 유치교섭 활동을 벌이며, 박 지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순방해 지지세 높이기에도 나선다.

2012년 박람회 개최국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유치경합을 벌여 오는 11월 27일 파리에서 열리는 BIE 142회 총회에서 98개 회원국 정부 대표의 투표로 결정된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IAEA 실무대표단 평양 초청”

北, 사무총장에 편지

북한은 지난 16일 마카오 방콕 코델리아아시아(BDA)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리제선 원자력총국 총국장은 이날 2·13합의에 따르는 영변핵시설 가동중지에 대한 IAEA의 검증감시 절차문제 토의와 관련해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BDA에 동결된 우리 자금 해제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국제원자력기구 실무대표단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양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의 이번 IAEA 실무대표단 초청은 BDA 문제 해결로 그동안 지연돼 왔던 2·13합의 초기조치에 대한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20일 IAEA에 편지를 보내 “BDA해제 즉시 실무대표단을 초청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를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

더욱이 BDA 북한 자금이 러시아 중앙은행에 도달했지만 아직 러시아 극동은행에 최종 송금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IAEA 대표단을 초청한 것은 눈에 띈다. /연합뉴스

‘정치 파업’ 度가 지나치다

기아차·금호타이어 등 줄줄이 ‘하루’ “또 경제 발목 잡나” 지역민들 진저리

금호타이어가 쟁의행위를 결의한 데 이어 기아차 노조 등 광주·전남 산업현장이 줄줄이 ‘하루(夏路)’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여 지역경제에 적지않은 악영향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이들 노조는 연례행사처럼 매년 파업을 되풀이해오고 있는 데다, 올해의 경우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정치 파업’ 지침에 따라 파업에 돌입키로 해 지역민들이 ‘도를 넘는 파업’이라며 진저리를 치고 있다.
18일 광주 경제계에 따르면 금호타

이어 노조는 지난 14~15일 ‘2007 임투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와 산별노조 전환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노조는 1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의 수위와 방법에 대해 논의한 뒤 19일 회사측과 임단협에 대한 조정을 거쳐 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또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의 경우 금호노조의 한미FTA 비준저지를 위한 총파업 지침에 따라 3일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당초 25일 2시간으로 예정된 광주공장지부 부분파업을 26일로 하루 연기하고 28일 4시간, 29

일 6시간 및 잔업 2시간 등 모두 14시간의 파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달 부분 파업에 들어간 리어 광주공장 노조에 이어 현대삼호중공업이나 여수산업단지 입주기업들도 조만간 하루에 나설 전망이다. 여는 해보다 뜨거운 여름을 맞을 전망이다.

지역내 산업현장의 분규에 따라 각 회사별로 생산차질과 함께 협력업체 경영난 가중, 지역 신인도 추락 등 막대한 손실이 뒤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 기아차 광주공장 A 협력업체 대표는 “지난해 1천여원이 넘는 적자에 이어 올해 1·4분기 적자폭도 700여원을 훨씬 웃도는데, 노조가 무슨 명분으로 파업을 하느냐”면서 “광주공장 파업반대를 위한 시위라

도 벌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조합원들이 이번 ‘정치파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며 서명운동에 나선데 이어,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우암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홍보실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sc.ac.kr
▶ 상담홍보실 1588-5051 ▶ T.061)360-5000

넵넵스
CRACKER

‘넵넵스’ 티켓 발매중!!
2007.6.30~7.1/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220-0541-1588-0766

매일, 속눈썹 퍼머한 듯

라네즈 하이뎀 컬링 마스크라
Curling for Asian Eyelashes.
혁신적인 디스크형 라베르러시가 놀라운 밀착력으로 권말 후, 파스틀리마가 속눈썹 퍼머한 듯 파워 세팅, 물레기로 연출해주는 마스크라. 아시아 여자들의 팔로 쉽게 차지하는 속눈썹 고민으로부터 탄생.

make up stand

LANEIGE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 www.laneige.co.kr